

	<b>보도자료</b>		<b>충남도당</b>
2017년 10월 18일(수)		대변인 : 김 연(010-3355-4074) 담 당 : 우승윤 정책실장	
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, 신부더샵 3층 / 041-569-1500, 010-3406-5528			

##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원 수직상승, ‘15만 명 육박’

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(위원장 박완주)의 당원 수가 1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,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실감케 하고 있다.

충남도당에 따르면, 9월30일을 기준으로 도내 총 당원 수는 146,121명으로 집계됐다. 이는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의 취임 1주년 당시 발표했다, 지난 7월 30일 기준 96,087명에서 2개월 만에 무려 50,034명(52.1%)이 늘어난 수치다.

특히,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(매월 1회, 1천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당원)의 수가 지난 7월30일 34,515명에서 9월30일 기준 85,993명으로 51,478명(149.1%)이 늘었는데, 이는 거의 모든 신규당원이 권리당원으로 입당한 동시에 기존 일반당원들 중 일부도 권리당원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.

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기준 일을 2018년 4월1일로 의결한 바 있다.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권리당원 85,993명 중에서, 2017년 4월~2018년 3월까지 기간 중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최종적으로 권리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.

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은 “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, 무려 8만6천여 명에 이르는 도민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권리당원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이 루 말할 수 없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”고 소회를 밝혔다.

아울러, “8만6천여 권리당원은 충남도당이 도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기틀이 될 것”이라며 “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언제나 도민의 곁에서, 도민과 함께하는 성실한 대변인이 되도록 더욱 더 정진하겠다”고 덧붙였다.